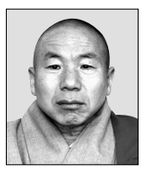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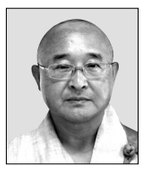
대구BBS 운영위원장에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7월 4일 열린 대구BBS 운영위원회의서 제6대 운영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어린이 여름 숲속학교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7월 29일 오후 2시 봉선사 경내서 '어린이 여름 숲속 학교'를 개최한다.



자원봉사자 템플스테이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7월 8~9일 경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금산사 자원봉사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사랑해 명상캠프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7월 21~23일 장성 백양사서 초중고교생 대상 '나를 찾는 선, 사랑해 명상캠프'를 개최한다.



2017 행복바라미 워크숍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7월 15~16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서 '2017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불청 여름캠프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7월 20~26일 전북 진안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서 '대불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조계종 직할교구 일부사찰 주지 인사

호국지장사 도호 · 약수사 도성 · 호압사 우봉 스님



도호 스님



도성 스님



우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직할교구 일부 사찰 주지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 약수사 주지 도성 스님,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이 임명됐다.

도호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하고, 대원사 주지를 역임했다.

도성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하고, 총무원 재무국장, 총무원 사서국장,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지장선원 주지, 불교상담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하고, 총무원 감사국장, 영랑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교육관 확대로 '불교르네상스'를"

Interview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

5년 전 19평 규모 교육관 마련
오는 10월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재계약 및 확대 위한 모연 행사
5억 조성 목표로 문화제Ⅱ 개최

"여성 불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관 마련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보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이 불교여성 인재불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교육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5억 원 목표 기금 모연을 위한 '불교르네상스의 꿈Ⅱ'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사진〉은 7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년 전 불교여성을 위한 교육장을 전세로 마련해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교육장을 확대 마련하고자 모연 행사인 문화제를 개최한다"며 "1700년을 이끌어온 한국여성불자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1년 교육관 마련을 위한 문화제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600여명의 참여로 7억여 원의 기금이 모연돼 서울 견지동에 약 19평 규모 교육관을 마련했다. 이번 문화제는 교육관의 재계약을 위한 모연 행사로, 오는 10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노 원장은 교육관 확대 마련이 불교여성 인재불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 교육 · 수행 · 봉사활동 · 창업 지원 등을 통합 및 활성화해 여성 불자들의 마음을 총결집할 수 있다"면서 "교육관 확대 마련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심도 있는 불교 콘텐츠를 생산, 불교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 원장은 대만불교를 선례로 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 불자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우리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더욱 적극적인 사회 교육활동을 펼칩니다. 국제구호, 문제아동교육, 불교신자 교육 등이 매우 활발합니다. 한국불교도 기복불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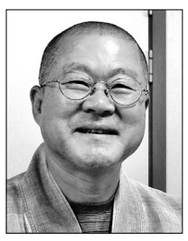
'불교르네상스의 꿈Ⅱ' 문화제는 10월 12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대고와 모듬북으로 구성된 타악 퍼포먼스로 시작해 동서양 악기로 혼합된 25오케스트라 서곡, 황병기의 '침향무' 가야금 독주, 탤런트 강부자 및 가수 웅산의 공연, 남상일 · 박애리의 국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1인 10만원.

불교여성개발원은 본 문화제 공연에 앞서 7월 10일 오후 4시 입재식을 거행한다. 이날 자리서 교육관 마련 기금을 위한 월 후원 약정 신청을 받고, 문화제 당일 회향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 대안공동체 설립 꿈꿉니다"

대안 공동체 세미나 여는 무위 스님



"현대사회에는 여러 병폐가 많습니다. 생활이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안 공동체 설립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선지식도량(가칭) 위원장 무위 스님(사진 · 대구 용연사 주지)은 대안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을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불교가 종교로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대중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스님은 불교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 기여 프로그램 · 문화사업 등을 진행하는 대안 공동체인 (사)선지식도량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선지식의 의미는 외호, 동행, 스승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선지식도량은 서로 배우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논의부터 세계 지성과의 교류, 자비행, 수행과 성찰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립이 가시화될 대안 공동체를 위한 첫 사업은 현 시대의 대안 공동체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이다. (사)선지식도량은 오는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대안 공동체의 실험과 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내년 완공 선센터에 부처님을"

만오 스님, 동국대 경주캠에 3억원 전달

기부와 자비행으로 잘 알려진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선센터 건립기금을 기부했다.

만오 스님은 6월 3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건립기금 2억 원 · 관음장학회장학금 1억 원, 총 3억 원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에게 전달했다.

만오 스님은 201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관인 사라림 건립을 후원하며 동국대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자비행을 펼쳤다. 2015년에는 관음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2억 원을 기탁,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2016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의 건립 기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현금 6억 원을 선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센터 건립이 시작됐다.

신성민 기자

올림픽 위한 종교인 역할 모색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퇴우 정념) 제23차 정기회의가 7월 4일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대표회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과 공동회장 김운회 주교 · 서석근 목사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종교인 역할과 점검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존중, 가정 회복 캠페인을 제안했다.

박아름 기자

청림회, 사찰도서관 문 열어



대전비구니 청림회는 7월 3일 청림회문화회관서 불서 읽기 문화활동과 불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 현판기증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관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의 후원한 현판식에 따라 청림회관 도서관은 제16호로 선정됐다.

청림회는 대전 보문사로 초입에 위치한 신식건물의 문화회관이다. 조계종지와 종풍을 대전지역 불자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생명나눔, 이소정 씨에 지원금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선정환자 이소정 씨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7월 3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광은 홍보대사와 이소정(가명 · 6) 양 및 보호자가 참석했다.

이소정 양은 출산 당시 난산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중국에서 태어난 탓에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하며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에 월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모금된 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박아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 본회 설립동기에 대하여 종단스님 및 문화예술단체 지도자님들께 널리 알리고 회원을 모시고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스님 및 지도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립동기 : 많은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몸담고 계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 임원과 회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 법인설립자 및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 각종행사 등을 하기 전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면 ● 회비 및 후원금을 회원들의 현실에 맞게 정했으면 ● 행사일정을 행사 15~20일전에 미리 연락해 주었으면 ●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 덕망 있는 좋은 분들 만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소생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오랜 기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필코 해결하여 회원님들이 신뢰하고 덕망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 종단 및 문화예술 단체등록, 종단행정,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사암등록,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단체명의 차량등록증 등 모든 행정에 대하여 지원도 해드리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립니다. (문의 : 사무총장 산수스님 H·P : 010-3300-0408)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회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